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관 충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충헌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6 충헌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지금은 사순절!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사순절은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는 은총의 절기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총 6주간으로,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주일을 제외한 40여 일 중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사순절의 40일은 원래 1세기에는 40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에 있었던 40시간과 일치시킨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3세기에는 6일간으로 늘어났다가, 1년 365일의 십일조 의미를 부여해 36일로 늘어났습니다. 이후 8세기에 4일이 늘어나 오늘날처럼 40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의 기간입니다(마 4:17). 그래서 종제 때의 사제들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에 신자들의 머리에 재(Ash)를 뿌리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카톨릭 신자들은 재의 수요일에 모여 죄를 용서받은 표지로 이마에 재를 찍어 바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순절이 반드시 회개와 참회의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골 2:12-15).

지금 우리는 사순 절기(3월 1일~4월 15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의 행사를 지르듯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이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권면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예배에서 증거되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실로 회개하며 은총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행 8:22).

*강중 의의

일 시: 오늘(26일), 4부 예배 후 본당

대 상: 세례교인 이상 (오늘 교구별 모임은 없습니다.)

*하절기 저녁예배 시간 변경 안내

4월 5일(수)부터 수요일 2부예배 및 금요집회 시간이 저녁 7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기도원 금요철야 집회 시간도 저녁 10시 30분에서 11시로 변경)

깨어, 이 말씀을 들으라!(금요 철야)

그리스도의 영광

3.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눅 7:36-40)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기를 원하였다(눅 7:30).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하였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에 주님을 사랑하는 한 여인이 귀한 옥합을 가지고 오자 그의 집안 분위기가 곧 변하였다. 그녀는 예수님의 뒤쪽에서 와서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었다. 자기의 영광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에 종성의 입을 맞춘 뒤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과 진실이 담긴 사랑이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주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메시야는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이들은 메시야를 기다리고 찾는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죄인을 구별하여 멸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이다(눅 7:30). 바리새인은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메시야라고 주장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였다. 바로 그 증거를 찾았다. 주님은 이러한 생각을 빚긴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다(눅 7:41-44).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탄이 죄인이라고 꾸짖었던 한 여인과 자신을 이 조금도 닮음이 없는 죄인이며 또한 용서함을 받은 자임을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은총으로 인한 것이다(딤후 1:15).

"너희는 가서 내가 금혼을 원하고 재사를 원치 아니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 9:13). 이 말씀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 것일까? 누가 죄를 탕감하여 주며 이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과 그 고마움을 과연 누구에게 돌려 줘야 하는 것일까? 적어도 여기에서 예수님은 시몬과 그 여인으로부터 빛을 준 자에게 주어질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눅 7:44).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신다. "누가 더 빛을 준 자를 사랑했느냐?" 시몬이 대답한다. "몹시 탕감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네 판단이 옳다." 그대에 예수님은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그 여자의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이후 예수님은 더 이어서 말씀하셨다(눅 7:45-47). 그 여인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깊고 심오하였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의 발에 엎드려 울며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발에 귀한 향유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 빛 준 자와 탕감받은 자의 비유에서 빛 준 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

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죄의 값은 죽음이며 사망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이 믿는 것이다(롬 3:10-13). 우리가 누구의 법을 어겼는가! 또한 이로 인한 죄 값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과연 누구인지 아는가? 우리는 죄의 문제와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일을 전제적으로 생각해야만 한다(롬 3:23,24). 그대야 비로소 용서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과 감사함을 요구하는 그분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 시몬도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의심이 있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이 줄이었으리라." 시몬은 그 여인이 죄 용서를 받고 참으로 성도가 되었음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빛 준 자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도 몰랐던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종류의 빛진 자들이 있음도 몰랐던 것이다. 탕감받은 것만이 아니라 탕감받은 자에게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몰랐던 것이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나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임박차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다(약 4:12). 그에게만 우리는 행해야 한다(시 51:4).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이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며, 또 그분만이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함을 말해 주고 있다(사 43:25, 1:18-20).

본문 말씀은 그 전부가 조용하게 무엇인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예수님은 종교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다. 이 종교인은 추한 죄인을 앞에 놓고 자기의 말씀과 선으로 메시야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은총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주시고 있다. 교만한 자들은 이 은총의 영광과 권위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그저 지적할 뿐이다. 시간과 돈과 정성을 바친다고 하며 그리스도를 집에 모셔 놓고는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왜 우리는 좀 겸손해질 수 없는가! 왜 죄 많은 여인인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내 마음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을 직접 접한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말구유에서 메시야를 어떻게 찾겠는가? 누가복음의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들로부터 그의 영광을 감추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빛진 자를 말할 때에 누구에게 빛진 것인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또 빛을 탕감해 주는 자를 생각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로부터 하여금 간접적으로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Sermon for Next Sunday

HE CONTROLS LIFE AND DEATH

⁽⁴¹⁾And so they removed the stone. And Jesus raised His eyes, and said, "Father, I thank Thee that Thou heardest Me. ... ⁽⁴²⁾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⁴³⁾He who had died came forth, bound hand and foot with wrappings; and his face was wrapped around with a cloth. Jesus said to them, "Unbind him, and let him go." (John 11:41-44)

During Jesus' three and a half years of ministry, He raised three people from the dead: Jairus' daughter (Mt. 9:23-25), the widow's son (Lk. 7:11-15), and Lazarus (Jn. 11:41-44). Lazarus and his sisters, Mary and Martha, were close acquaintances whom Jesus loved dearly. They lived in Bethany, and Jesus stayed with them many times. When Lazarus died, Jesus went to his home. As He approached it, Martha ran up to Him and said,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Even now I know that whatever You ask of God, God will give You" (vv. 21-22). Jesus responded, "Your brother will rise again" (v. 23). He further explaine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if he dies,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will never die" (Jn. 11:25-26). Jesus Christ is Lord over life and death. He raised three dead people in the sight of many witnesses, yet most of these witnesses still crucified Him. Even though He Himself died, resurrected, and ascended into heaven in the presence of many, people still do not believe He controls life and death.

In today's seminaries, priests and pastors juggle the idea of whether or not Jesus controls death and life. They wonder if He really is the way, truth, and life, and if so, if He really is the only way, truth, and life. Many people followed Jesus and claimed to be His disciples, but after they analyzed, discussed, and doubted His actions and words, they stopped following Him. Right now, you say you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the Bible, but do you really believe He raised Lazarus? Do you really think He can raise you from the dead? Truthfully, He can easily raise you from the dead, but you cannot logically or rationally reason how. If you question His methods, you will be in trouble. Lazarus' story drives you toward mysterious power, God's power. You can either believe it or doubt it. If you do not believe it, how can you believe in Jesus' ascension or His return? Human knowledge and reasoning cannot reach this truth. It is far beyond our capacity. Your wisdom and efforts cannot help you arrive in the eternal kingdom of God. Perhaps you can reach heaven's gates, but that will not do you any good because anyone outside God's kingdom is eternally doomed. Resurrection and ascension are holy, holy secrets.

Before Jesus resurrected Lazarus, He prayed. He raised His eyes, and said, "Father, I thank You that You have heard Me. I kne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because of the people standing around I said it, so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vv. 41&42). Jesus called God His Father. He and God have a Son and Father relationship. He prayed first for the glory of God, and secondly for the believer's to have assurance of faith. He knew His Father listened to Him, so He knew that He could control death. He

thanked His Father because He knew His Father would answer Him. He already believed it. He prayed aloud so that believers could trust God. His prayer helps believers to pray and believe in God.

As a believer, you should pray for the glory of God because Jesus will answer you. Jesus said, "Until now you have asked for no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so that your joy may be made full" (Jn. 16:24). Whenever you pray, you know with your faith that God's glory will be done. Jesus said, "If you ask Me anything in My name, I will do it" (Jn. 14:14). Do you believe this? Jesus knew from the beginning that God would answer His prayer. Do you know that God will answer your prayers? Jesus wants you to understand this wonderful concept. He says,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Jn. 15:7). Come now, do you really believe it? If not, then the glory of God is done.

Jesus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He cried out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forth'" (v. 43). His three small and firm words brought victory, so much so that a dead body obeyed them. Lazarus came forth, "He who had died came forth, bound hand and foot with wrappings, and his face was wrapped around with a cloth. Jesus said to them, 'Unbind him, and let him go'" (v. 44). His clear and simple order brought life to a dead man. John 5:26 says, "For just as the Father has life in Himself, even so He gave to the Son also to have life in Himself." Jesus, the Son of God, has life in Him. He gave this life to Lazarus because He controls life and death.

Jesus called Lazarus by name. When He returns He is going to call every believer by individual name. John 10:3 says, "To him the doorkeeper opens, and the sheep hear his voice, and he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Jesus said, "I am the good shepherd, and I know My own and My own know Me" (Jn. 10:14). Do you know Jesus? He said,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Jn. 10:27). Do you hear Jesus' voice? Do you follow Him?

My dear friend, if you continue to question and doubt God's ways, which are clearly above all levels of human understanding, then you are not going to know Jesus. Matthew 25:21 says,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lave. You were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enter into the joy of your master." Jesus wants to know if you have faith. So many people doubt, and want to discuss issues to make excuses. This fifth Lent Sunday, know that Jesus raised Lazarus for God's glory and for believers' faith. He is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has victory over death, and He will give you eternal life, if you trust Him. Do you trust Him? If you do, then your life will have victory. Amen. 

다음 주일 설교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김성원 목사

“땀을 흘려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⁴³⁾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⁴⁴⁾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41-44)

3년 반의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은 세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은 아이로의 딸(9:23-25), 과부의 아들(들)(7:11-15), 그리고 나사로(11:41-44)입니다. 특히 나사로와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은 베다니에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주 그곳에 들러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은 그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오시는 것을 보고 마르다가 달려 나와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21,22절). 이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23절).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26).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삶과 죽음을 주관하십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목격했던 무리들 대부분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주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믿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

오늘날 많은 세미나에서 ‘예수님께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육신각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그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의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고, 논외하고, 의심하면서부터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성경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습니까? 진실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진실로 단언하건대 주님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는 우리의 논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님의 방법에 대해 의심을 갖는다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나사로에 관한 기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비로움 권능 속으로 빨려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도 있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승천이나 재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추론으로는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지혜나 노력만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혹시 천국의 문 앞까지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승천은 참으로 신성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리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41,42절).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고, 두 번째로 신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죽음도 능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신자의 기도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여러분은 정말로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43절). 주님의 간절하면서도 확고한 이 말씀은 승리를 불러왔고, 죽은 육신까지도 복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사로는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44절). 예수님의 분명하고 단순한 명령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요한복음 5:26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신자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0:3에 쓰인 말씀처럼 말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요 10:14).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 의심하고 질문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모든 이해의 수준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21은 말합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든지 알고 싶어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 평계를 달린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 삶을 주신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타고를 신봉했던 저는 2003년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철역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집사님은 계속 안부 전화를 주셨고, 주일매체에 참석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돈도 벌어야 했고, 컴퓨터와 한국어 등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간다는 것은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돈도 벌 수 있고 건강하고 무엇이지 할 수 있다. 교회 가는 시간에 더 열심히 살면 나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작업 도중 소니 기계에 들어가 손가락은 180도로 돌아가고 손바닥은 형체도 없이 다 없어지고 움푹 파인 손들은 하얀 뼈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정신도 못 차리던 저는 주위의 도움으로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텅 빈 입원실에는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고 또 연락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고통짜 할 수 없는 오른 팔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때 몇 달 동안 매주 전화해 주셨던 교회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전화를 했고 집사님은 놀라서 즉시 오셨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진작 교회에 갔더라면 내가 기도했었는데 그럴 염치가 없었습니다. 그 날부터 매일 집사님과 만나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큰 십자가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 나니 다시 살 수 있구나. 죄를 사해 주신다고? 밀자 예수님을!’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두 달 동안 성경을 완독하고 지금은 다시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일주일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퇴원하여 물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도 못 하는 저에게 계속하여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손바닥은 허벅지 살을 이식했고 금속 심을 박았던 손가락도 모두 감각을 찾았습니다. 아직 무척은 쥘 수 없지만 취지는 제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의 죄로 영원히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저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깐요. 비록 손이 이 이상 완전해지지 않더라도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너무 적은 값이 아니가요? 저는 지금 즐겁고 평안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니까요.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시니까요. 이제 저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목숨과 사람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내 나라의 이슬과 영혼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가 (외선부)

모든 열방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까지

사역지로 난 산동성이 길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간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산을 뛰어 낸 이 길을 밟고 지나가는 나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 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나를 보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신 것을 다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를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없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계획은 포기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놀라운 만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된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던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각지를 끼쳐 꼭 안아주던 아이들을 나의 기억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그들과 헤어지지만 천국에서 다시 그들을 만나기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안타까워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으로 기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열심이 그것을 이룰 것입니다. 오직 나는 그 일에 끝날까지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찬양합니다.

김찬미(대학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3월 14일(화) ~ 3월 23일(목)	12교구 6지역	이성성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1일(화) ~ 3월 29일(수)	11교구 6지역	박성명
3월 21일(화) ~ 3월 29일(수)	직 원	최상기
3월 21일(화) ~ 3월 30일(목)	12교구 8지역	정영래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3월 27일(월) ~ 4월 5일(수)	16교구 5지역	김규용
3월 27일(월) ~ 4월 5일(수)	12교구 1지역	조문수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단다

나는 한창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에 이랑곳하지 않고 한 쪽에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때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서 잠자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나의 영적 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실 그 때 나는 복음을 듣지 않고 잠자고 있는 방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깨우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 순간 그 안타까운 시선이 그 동안 나를 보셨던 예수님의 심정이었음을 깨달았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죄인을 세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택하셨듯이 저 무지한 죄인을 깨우소서!”

전도지의 문장을 읽을 때나 소리지 그들에게 전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여기 너와 함께 있단다.’ 오직 믿음으로 전도할 때 잠자던 여인이 깨어 집 밖으로 나오고 감사하게도 영접 기도까지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신실하지 않으리요. 어제나 오늘이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딸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에서, 잠자던 내가 이제 다시 눈을 떴다. 세상 속에서 다시 졸음이 물러오고 유혹에서 빠질 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를 깨우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박유미(청년1부)

나를 변화시킨 십자가



이미 죄로 인해 죽었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소망이 없던 나에게 십자가로 인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렸고,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으시고 나에게 주는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참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것을 주셨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고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나에게 나의 죄악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 죄악들이 나를 낙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중 같이 붉은 죄들을 눈 감아 회개 해 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인데 주님은 내가 그 십자가를 잊거나 떠날 때마다 다시금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붙들십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기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너무나 더러운 내 자아가 살아서 십자가의 기쁨을 모두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에 걸려 넘어져, 십자가를 바라보기 보다는 다른 것들에 온통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도 고집쟁이이고 완악한 죄인인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더러운 모습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의인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예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전혜정(대학부)

매주 주시는 은혜!

매주 주보에 실는 만화를 언제가부터 신 생님을 대신하여 내가 채워나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할 말이 참 많았다. 예배 시간에 떠돌지 말자, 친구를 사랑하자 등 많은 주제를 가지고 그렸다. 그렇지만 몇 달이 지나자 참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일 주일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책을 뒤지고, 기도하며 아이디어를 구하게 되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아셨고 어찌 그리 멋진 아이디어를 매주 주시는지!

만화를 그리면서 정말 좋아하게 된 말씀이 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고전 3:7,11). 주님은 항상 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 내가 만화를 그리게 된 것도, 지난 1년 동안 이 자리를 계속 지켜온 것도, 내가 그림을 잘 그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제부터 일상이 되었다. 친구들을 때때로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냐?"라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난 자신 있게 대답한다. "예수님께서 주셨지." 내가 한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 내 손을 도구 삼아 그리스인 만화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 감사하다.

조수빈(중동3부)

Prayer is Life! 기도는 삶이다!

The essence of prayer doesn't consist in asking God for something

기도의 본질은 주님께 무언가를 구하는데 있지 않다

but in opening our hearts to God,

기도의 본질은 주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고,

in speaking with Him,

주님과 대화하고

and living with Him in perpetual communion.

주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사는 데 있다

Prayer is continual abandonment to God.

기도는 주님을 향한 계속적인 자기 부인이다

Prayer is the desire to possess God Himself, the Source of all life.

기도는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려는 열정이다

The true spirit of prayer does not consist in asking for blessings,

진실한 기도의 영은 세상의 복을 구하는 데 있지 않다

but in receiving Him who is the giver of all blessings,

진실한 기도는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시고

and in living a life of fellowship with Him.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Sadhu Sunder Singh 선다 싱

한 시간 먼저 드리는 기도의 힘

십자가의 사랑은 저에게 은총의 자녀뿐 아니라 영혼을 천국일꾼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사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이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일상의 분주함 때문에 피곤하지만 매 주일 아침마다 주님은 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 유년부실에 한 시간 먼저 와서 아이들 앉는 자리에서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는 저에게 주님은 매 주일마다 큰 은총을 주십니다. 제가 잘 가르치고 지도하기보다는 주님께 서 함께 하시니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지만 예배와 분반모임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믿음 1과 1만 친구들! 이 선생님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한다. 야니, 이 선생님보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제일 많이 사랑한다. 우리들도 계속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만 전하자!"

박병철(교사, 유년부)

교회 탐방 사랑부(사랑2과)

“예수님 사랑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어느 누구보다 열심인 사랑부 지체들! 이들이 진심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같이 전철을 타고 교회에 왔요. 저와 외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고맙워요. (강정민)

처음 정민이 만났을 때는 산만하여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는데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변화되는 모습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들 잘 들으라고 말씀을 혼자 읽는 모습에도 전받지요. (김문경 교사)



예수님을 사랑해요. (박송남)
송남이는 말을 잘 못 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뜨거운 것을 느껴요. 걸 사람은 어눌한 모습이 많지만 속사람에게는 누구보다 강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정순경 교사)



예수님은 저에게 잘 물었던 세상을 알게 해 주셨어요. 사랑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요. (이유경)
저보다 더 많이 저를 사랑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더 전받고 있어요. (정미연 교사)



매주 사랑부 친구랑 전철을 타고 와요.教堂대에서 찬양을 하고 울동을 하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기뻐요. (오재우)
재우는 예배 공부 시간을 위해 매주 예수를 하고 찬양대를 위해 일찍 교회에 오는 성신안 친구예요. 그래서 저도 매주 재욱이를 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요진 교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좋아해요. (정미아)
처음 사랑부에 와서 이들을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서 지냈던 저에게 오이래 아이들이 더 힘이 나게 해 주고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황유영 교사)
教堂대에서 찬양을 하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기뻐요. 찬양을 외워서 하는 것도 좋아요. (주연우)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혼자 나와요. 예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것이 좋아요. 할 때 예수님 잘 믿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박영정)
매일 매일 사랑부에 오고 싶다는 학생들을 보며 예수님을 수수하게 믿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사랑부에 소속되어 예배를 드려야 할 아이들이 교구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사랑부에 소속된 친구들이 있다면 모두 보내 주세요. 사랑부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1:1로 섬기고 있습니다. (김혜영 교사, 사랑2과 교장)



온자서 매주 사랑부에 나와요. 맛있게 점심 식사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해요. 저는 약하지만 예수님을 강하게 해요. (오은실)

올해부터 사랑부 봉사를 시작했어요. 몸이 정말 많이 아를 때를 제외하고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온자서의 뜨거운 믿음을 보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 배우게 됩니다. (조인선 교사)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욕심이 없어지고 행복해요. 사랑부에서 좋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양정)

사랑부에서 봉사하며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한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같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모습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심재원 교사)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김세은)
세은이는 형이 많아 친구들을 잘 챙겨 줍니다. 저는 사랑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몸이 힘들고 미숙한 모습이지만 서로 도와 주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늦은 차로 오신 주님이 3년 동안 외로운 사람들을 섬기셨던 모습이 어 모순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낫아진 모습을 알고 싶습니다. (김경은 교사)

사랑부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오전 11시에 중헌복지관 지하1층 예배실로 오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



거룩한 성

우리는 사순절을 맞아 매주 금요일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성금요일(4월 14일), 금요일에 시에 온 성도가 찬양대가 되어서 드릴 찬양이기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Stephen Adams(1844~1913)에 의해 1892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Danny boy(하 목동)~한 국어 번역의 작사자인 Frederic Edward Weatherly(1848~1929)가 있습니다.

“나 이제 밤에 잘 때 내 꿈을 꾸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로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이 찬양은 모두 세 가지 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에 언급된 세 꿈 안에 주인공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살았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다.” 첫 번째 꿈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겐손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 21:7-10).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려진 그 때의 일이라.” 두 번째 꿈은 십자가에 달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사 53:4-6). “그 유리바레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속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라.” 세 번째 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계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제 21:2, 10, 22-27).

멜로디가 무척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이 찬양은 분명한 반주의 흐름과 마치 구름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듯한 무한한 햇빛단요의 연속성, 험한 호산니와 외침, 특히 전주의 신비스럽고 엄숙한 경건성, 꿈과 꿈 사이를 연결하는 재치 있는 간주로 참으로 은혜롭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사랑하는 중헌의 모든 성도가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사랑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며(제 21:4), 살아 계신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것을 소망합니다. 김원섭(전임지휘자, 찬양위원장)

♡ 새 · 가 · 족 · 율 · 환 · 영 · 합 · 나 ·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968	김태경	4	창12부	남한숙	995	신지연	19	고동부	이숙희(1)
969	임 윤	19	외산부	이수재(1)	996	주국봉	1	창12부	최성영(9)
970	박진자	1	창12부	김희술(1)	997	조진현	11	창12부	공재희(8)
971	차지영	10	창12부	김경미(12)	998	한정실	19	창12부	김대희(12)
972	김종호	11	창12부	김정재(11)	999	황규구	15	창12부	황형태(2)
973	박지봉	3	외산부	조혜순(18)	1000	정현성	9	창12부	이옥경(113)
974	노아라	19	외산부	배지미(11)	1001	한진경	9	창12부	김종섭(9)
975	이 열	19	외산부	1002	박현숙	1	창12부	이희환(11)	
976	전진규	19	창12부	수준숙(15)	1003	김희정	19	고동부	이민연(8)
977	한수경	19	창12부	박종철(1)	1004	최영순	1	창12부	남정희(15)
978	이희진	19	창12부	김정재(1)	1005	이민호	19	창12부	안하은(3)
979	다지연	19	창12부	최정재(1)	1006	김민정	7	창12부	이진규(6)
980	박광수	3	창12부	장유정(1)	1007	김정호	6	창12부	권하은(3)
981	임소은	3	창12부	김재규(1)	1008	홍지서	8	창12부	박윤선(1)
982	박정혜	19	창12부	장유정(1)	1009	한현민	8	창12부	김중호(11)
983	이은정	19	창12부	이은주(17)	1010	전복희	4	창12부	신복희(4)
984	이은정	19	창12부	이은주(17)	1011	이은정	4	창12부	안복희(4)
985	조수하	19	창12부	한은숙(18)	1012	이은주	7	창12부	오정희(7)
986	신지연	17	창12부	김지연(1)	1013	이희정	19	창12부	
987	김지연	17	창12부	박지수(1)	1014	박지현	19	창12부	
988	민민주	19	창12부	김종섭(15)	1015	한진경	19	창12부	김정선(1)
989	이희정	19	창12부	김정재(1)	1016	이희정	15	창12부	최정재(15)
990	최종규	5	창12부	노은정(17)	1017	최정호	19	창12부	김중호(11)
991	김정실	19	창12부	전진규(18)	1018	윤혜미	19	고동부	임영민(1)
992	최지은	5	창12부	노은정(17)	1019	전복희	16	창12부	한석진(17)
993	박지연	19	창12부	김지연(1)	1020	이 열	19	창12부	
994	박혜련	19	고동부	황정민(1)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모임

일시: 2월 2일(수) 2부 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안수집사 1지회 월례회
일시: 4월 2일(다음 주일) 15:10
장소: 아멘홀(본당 지하1층)

1. 전정훈 성도(전옥비 집사의 시모, 5교구 양재2구역) / 16일 별세, 18일 장례
2. 강광운 성도(관종순 은퇴사리의 남편, 강영미 전도사·강영애 집사의 부친, 조종득 안수집사·관순상 성도의 장인, 14교구 대림2구역, 7교구, 8교구) / 16일 별세, 18일 장례
3. 문영숙 티교권사(원영주 집사의 모친, 윤병훈 집사의 장모, 2교구 이화3구역) / 17일 별세, 20일 장례

4. 양옥주 태고집사(서해군 집사의 모친, 김진경 집사의 시모, 20일 경계)
친구, 17일 별세, 25일 장례
5. 김삼빈 태고집사(거북도 관아의 남편, 김명희 집사의 부친, 최영인 집사의 장인, 72주 전친구역, 9주과)
19일 별세, 21일 장례
6. 김종두 태고집사(김경진 집사의 부친, 최홍재 집사의 장인, 3주과 도곡경남구과)
19일 별세, 21일 장례
7. 이은순 태고집사(함양군 집사의 모친, 김은한 안수집사의 장모, 50주 양제 1주과)
21일 별세, 21일 장례
8. 최경숙 태고집사(우진환 집사의 모친, 구명남 집사의 시모, 4주과 반과 3주과)
20일 별세, 22일 장례

1. 육진환 군(육동진 성도의 아들, 8교구, 송암교회)과 정은규 양(정영태 성도, 신회숙 성도의 딸, 신일교회)

/ 3월 31일(금) 15:00 갈릴라움
 2. 지형민 군(구유철 집사, 김순희 권사의 아들, 누님의 고제)와 신동익 양(신영철 성도, 박계영 집사의 아들, 3교구) / 3월 31일(금) 18:00 삼성동 배당전 전담 2층 도파자루
 3. 신준성 군(김임순 집사의 아들, 4교구)와 백영희 양(백남호 성도, 노성래 성도의 딸, 5교구) / 4월 1일(토) 11:00 국제전자센터 문화관
 4. 인생원 군(안유준 씨, 유혜순 씨의 아들)과 이신화 양(이종훈 집사, 차영선 집사의 딸, 2교구) / 4월 1일(토) 18:00 뚝섬유원지 구유철전담홀

일자: 3월 26일~6월 11일(12주)
시간: 매 주일 오후 3:10~4:20
장소: 에비다부실(제2교육관 1층)

장소: 동문 앞

금요일 예배 시에 자녀와 함께 참석
성도님들을 위하여 영아부실에
24일(금)부터 탁아부를 운영하오니
참석 바랍니다.

구 분	4월 2일(다음 주일)	4월 9일(주일)
제1강(18:10-18:50)	사도행전의 선교	선교 현장의 영적 상황

월	일	주일 예배 (절로)					천왕 예배 (인수집사)	수요 예배	
		I	II	III	IV	V		I	II
2		최지웅	최하영	이달옥	안석현	장정현	문호준	성종준	조광환
9		박성남	임두원	전종필	함철주	신상우	구원섭	전현신	김영숙
16		김규식	신성길	김종민	김연은	김종선	전성진	신승금	황종일
23		신광철	유성태	고재술	김건근	박철규	최부길	김연홍	김정수
30		전철기	전홍용	노영환	김정국	임창식	안준우	홍기우	윤자라

	3/27(월)	3/28(화)	3/29(수)	3/30(목)	3/31(금)	4/1(토)	4/2(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진흥용	조규호/이세영	조규호/이정태	조규호/김종훈	조규호/김영환	나광영/최문실	임헌덕/전은희

날짜	예배	찬양	사회	교인	설교
3/29	수요 I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은 (호산나 찬양대)	정준	만수목	내 아버지께서 이세까지 일하시니 오늘도입니다 (요 5:17-20) 김성관 목사
3/29	수요 II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성로양 찬양대)	이경은	채세진	전리의 영과 미움의 영 (요 4:1-6) 정성진 목사
3/31	오교집회	꽃들 김용경 / 소리로도 경성회 / 일마누엘 찬양대	김승민		김성관 목사
4/2	주일 I	예수님 찬양 (호산나 찬양대)	김성훈	최지윤	살과 죽음을 주신다는 예수님 (요 11:41-44) 황진성 목사
4/2	주일 II	예수 나를 위하여 / 오복마리 김희영(남자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안정덕	최하은	살과 죽음을 주신다는 예수님 (요 11:41-44) 강 종 목사
4/2	주일 III	나 위하여 십자가의 / 열매가 된 열매찬양대 (이수연)	류병호	이달용	살과 죽음을 주신다는 예수님 (요 11:41-44) 김성관 목사
4/2	주일 IV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열매가 된 열매찬양대 (이수연)	주요조	안석원	살과 죽음을 주신다는 예수님 (요 11:41-44) 이종대 목사
4/2	주일 V	하나님을 위하여 / 소리로도 김희영(남자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이희정	정찬원	살과 죽음을 주신다는 예수님 (요 11:41-44) 김태석 목사
4/2	주일전야	이교역제 오아시스 / 내일 연두대 / 아메리칸 찬양대	오창수	문유신	내 맘에 거머쥔 내의 골짜기라 (요 8:31-32) 김성관 목사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필수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필수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집회	저녁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 당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 오전 9:00 II 오후 11:00	선교관 1층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집회	시간	차 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금요일차	저녁 10:30	금요일차 후 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회로, 오호 31시에 드리는 주일 1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등도 동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Sri Lanka,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분	시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장부	오후 12:15	갈 길 리 1층
장부	오후 11:00	북지관 지하 1층
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상인)	제2교육관 1층
다부	(주) 오전 8:00~4:00 (금) 저녁 6:30~9:00	교육관 110호
양부	오후 12:15	대 니 홀
원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원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원인교육	오후 11:00	신 안 회

■ 위인모사 김석과

■ 부목사

이	이 훈	이종대
사	이혜복	이국주
호	차신득	여국근
	4기국정국보위	4기국
제	진홍용	고광환
	행정국장	13기국
규	김영수	이희식
원	통신부장	6기국
현	황의만	양재웅
	이재위원	관정국
양	이태식	이경준
장	봉사위원	대행부
환	배춘식	정성영
	2기국	9기국

한 박철구 ■ 여전도사

형	김영은	신봉자
원	전도위원	1교구
주	윤석민	이옥주
부	윤석민	5교구
국	김중선	최문실
	2교구	7교구
국	전계식	이복순A
원	대학부장	13교구
식	구재완	옥미자
	고대부장	새가톨릭학부
대	박상대	
	장로부장	

■ 천양감독
 ■ 전임지휘자
 ■ 전임독창자

3월 총현 기도의 창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지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②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③ 2006년도 단기 선교와 모든 선교 훈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며, 선교에 방관자가 없게 하소서

④ 1·1·1전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7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현복직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온 영도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도(우기, 동산, 복귀)의 신

자신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이번 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주력 교구
2006년 3월 27일(월) ~ 3월 31일(금)

날 짜	주력 교구
3월 27일(월)	1, 14, 18교구
3월 28일(화)	4, 10, 13교구
3월 29일(수)	5, 8, 15교구
3월 30일(목)	2, 11, 16교구
3월 31일(금)	9, 12, 17교구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나이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사순절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으니 사순절기(3월 1일~4월 15일) 동안 가급적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 시무장로

김기철	김은호	노정현	이명학	이 훈
기동현	김정호	노정호	이명호	이훈
남상우	김종구	최무길	이창호	차지현
	최은기	최무길		차지현
김광남	이종식	임무천	이강재	전종훈
	이종식	임무천		전종훈
김동필	이원우	김단웅	한승규	김정호
	이원우	김단웅		김정호
김동현	이정철	이형수	안동현	황기현
최동현	이정철	이형수		황기현
전두영	최윤덕	이계인	박익환	이영호
	최윤덕	이계인		이영호
김태두	박홍규	권명호	조준환	배승식
	박홍규	권명호		배승식
김영민	이시호	최지윤	노영환	박규근
	이시호	최지윤		박규근
정경길	전상우	고재호	강형철	김요한
	전상우	고재호		김요한
이달호	장철현	김승곤	함철주	윤서민
	장철현	김승곤		윤서민
전성현	안석현	김연근	김창근	김준호
	안석현	김연근		김준호
임정석	전재호	김신욱	김신욱	전석호
	전재호	김신욱		전석호
김형근	장승주	전은배	서영식	구재환
	장승주	전은배		구재환
송두집	최하용	신선길	유상태	박상대
	최하용	신선길		박상대
김규석	신광철			

■ 부목사

홍대 신우회	정현민 신우회	박기근 신우회	류병희 신우회	김영환 신우회
여국근 신우회	안창덕 신우회	나광영 신우회	정진호 신우회	김용우 신우회
고희환 신우회	원관란 신우회	김희찬 신우회	장 준 신우회	임원희 신우회
이성환 신우회	최홍철 신우회	조국환 신우회	안지현 신우회	정승호 신우회
양재호 신우회	이성진 신우회	조주호 신우회	최석근 신우회	안지현 신우회
이경준 신우회	이창수 신우회	김준희 신우회	윤수일 신우회	황진환 신우회
정성영 신우회	이경훈 신우회	김태서 신우회	김성훈 신우회	최동환 신우회

■ 여전도사

신동후 신우회	윤인숙 신우회	한영준 신우회	김연식 신우회	홍은아 신우회
이옥주 신우회	김말자 신우회	안태순 신우회	김정연 신우회	강다원 신우회
최필선 신우회	전은희 신우회	김영순 신우회	김경자 신우회	김보희 신우회
이복순A 신우회	류진희 신우회	한성일 신우회	임태주 신우회	강명미 신우회
옥지자 신우회	이복순B 신우회	강호숙 신우회		

■ 전일감독 강갑근

■ 전일지휘자 서갑성

■ 전일감독장 김소연

■ 전일면주자 강연희